

지역 소식통

정읍시, 안심 가림막 설치

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서 구내식당과 민원실 등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

구내식당과 민원실은 장소 특성상 밀접 접촉이 많아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침방울)감염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번 가림막 설치로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식사와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외에도 청사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해조류 포획 트랩 지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는 과수 농가의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 트랩을 지원하며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유해조류는 직박구리와 어치, 까치, 물까치 등으로 과실의 당도가 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과일을 쪼아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처럼 유해조류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와 배, 단감, 복숭아 등 재배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설치와 이동이 편리한 포획 트랩을 지원했다. 포획 시기는 산란기 전과 과실 수확기이며, 사전에 환경과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0.5ha에 1세트 기준으로 과원 외곽에 100m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물까치와 직박구리, 까치를 유인새로 사용하며 물과 먹이를 주어 관리해 준다. 센터는 유해조류를 직접 포획하는 방법으로 개체 수의 밀도를 줄여 장기적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봄철 축사관리는 이렇게”

정읍시, 축사 내부 환기·온도·습도 관리와 소독 방역 당부

정읍시는 환절기 큰 일교차로 인한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해 축사 농가는 축사 관리에 많은 주의를 당부했다.

소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편안하게 사료를 먹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환절기에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질병 감소에 전념해야 한다.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바깥의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는 보온을, 낮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과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 내의 온도와 습도 조절, 유해가스 배출 축진을 위한 통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해 성장 단계 별로 적정 사육 온도가 16℃에서 35℃까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경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돼지우리 안 온도 관리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환기가 미흡해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새끼돼지는 체온 유지 능력이 부족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모유 소화 능력이 낮아져 설사를 일으키고 다른 질병에 대한 방어능력도 떨어져 허약해질 수 있으므로 새끼돼지 전용 보온 상자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닭은 날씨가 풀렸다고 보온시설을 제거하면 새벽에 닭장 온도가 떨어져 생산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방한 설비를 서서히 제거해 낮과 밤의 닭장 내부 온도 차가 10℃

이상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낮에 창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닭장 내에 충분히 공급해 환기하고, 해가 지기 전에 창문을 닫아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줄인다.

봄철에는 일조 시간이 길어져 닭의 모든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사료의 질과 양을 조절해 지방담의 발생을 예방하고 일조 시간에 맞춰 점등 관리를 해 산란율의 저하를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가 될 만한 곳을 소독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환기와 온도, 습도 등 축사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육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보호수와 노거수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터줏대감 보호수·노거수 지킨다

정읍시, 지역 산림문화자원 보호... 외과수술·주변 정비 등

정읍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보호수와 노거수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총 9천 8백만 원을 들여 덕천초등학교 외 2개소에 자리한 3본의 보호수와 태인면 태남리 545-5 외 12개소에 자리한 22본의 노거수를 대상으로 외과수술·주변 정비를 진행한다.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문화자원인 ‘보호수’와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노목·거목·희귀목 등 ‘노거수’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보호수’는 보존과 증식 가치가 있어 지역에서 보호하는 나무이고, 노거수는 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를 이른다.

시에 따르면 시는 수령이 100년 이상

이고 규격 등이 적합한 나무 중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노목, 거목, 희귀목 중 역사와 전설이 담겨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다.

현재 43개 지역에 소나무와 팽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배롱나무 등 68본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정된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병충해를 방제하고 생육환경을 점검, 성장발달목과 고사우려목에 대해 외과수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 터줏대감인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산림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통합관제센터 요원, 지적장애 미귀가자 신속 구조

부안경찰서 감사장 수여

부안경찰서(서장 박훈기)는 부안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지적장애 미귀가자 조기 발견에 기여한 관제요원에게 1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부안경찰서 생활안전팀은 지난달 24일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신고 사건을 접수 후 다른 사람을 따라나서는 미귀가자를 발견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 감식관 관제요원 활약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귀가시켰다는 것.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3월에 개소해 현재 총 541대의 CCTV를 운영하며 3교대, 15명(생활안전팀 3명, 관제요원 12명)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안전 대응과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등 범죄 예방·해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미귀가자의 가족은 서립지구대



부안경찰서(서장 박훈기)는 부안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지적장애 미귀가자 조기 발견에 기여한 관제요원에게 1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를 방문해 핸드폰도 가지고 나가지 않아 찾을 방법도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 주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 오영욱 안전총괄과장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안경찰서와 유기적

인 협력을 바탕으로 범질서 확립과 위해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안전한 군민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한수원, 연안 해양생태 활성화 협약

고창군과 한수원지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최근 연안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빛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일환으

로 구성·운영중인 한빛원전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지역협의체 규정에 따라 고창군에서 제안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창군 제안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 ▲조

업증 인양쓰레기 수매 ▲바지락 프랜차이즈 컨설팅 용역 ▲어촌계 재원을 통한 활성화 ▲두어마을 6차 산업 활성화 ▲바닷길 진출입로 정비사업 등이다.

사업비는 총 3억3500만원으로 발전소 인근지역 해양생태 활성화를 위해 투자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예방 총력 대응

정읍시가 청명(4일)과 한식(5일)을 전후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활동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해마다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성묘객과 상춘객 등에 의한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등 126명을 읍면동 마을별로 배치해 집중 산불 감시 활동을 펼친다.

또, 산불 예방 무인방송시스템 3개소와 산불감시무인카메라 5대 등을 활용

해 산불방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청명·한식은 묘지 단장 작업 등 산림 내 소각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전 직원의 1/2 인원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산림인접지 또는 산림 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시 인화 물질 사용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청명·한식 전후로는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